



3면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선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음 12월 7일) 제342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신년맞이 어르신 섬김 떡국 나눔에 앞서 16일 전주 서신동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신년맞이 어르신 섬김 떡국나눔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맞손을 잡고 있다.

‘교류지역’ 日 이시카와현에 지진피해 구호금 전달 결정

전북도, 피해상황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 10만달러 지원키로

전북도가 교류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진도 7.6) 지진으로 지금까지 약 220명이 사망, 약 3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교류지역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 구호금을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1월 1일 지진 발생 직후 현과 직접 소통, 상황을 파악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국 출장에서 복귀 후 16일 오전 9시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畷告)지사와 전화로 연락, 현재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전라북도민의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했다.

이날 전화 면담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시카와현민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북도민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시카와현 하세 히로시 지사는 “김관영 지사님과 전북도민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24시간 체재로 피해복구 대응을 하고 있으며 1개월 내 진도 5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로시 지사는 또 “이시카와현청 소재지인 가나자와시 등 노토 지방 외 다른 지역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류지역인 전북도가 도민들에게 오해 불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이시카와현은 2001년 양 지역간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약 23년간 청소년, 행정, 문화, 환경, 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하세 히로시 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 김관영 지사와 환담하고 양 지역간 교류 분야 확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새롭고 특별한 전북시대 ‘문 활짝’

전북특별자치도 18일 출범식... 17일 전야제 개최
14개 시군·도민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 계획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화려한 출발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와 ‘출범 기념식’을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먼저 전야제는 ‘함께하는 전북’이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6시부터 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식전 공연으로 K-POP 공연과 미디어 대북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 주요 인사들의 축사, 14개 시군의 릴레이 플래시몹 영상 등 본 행사 후예, 식후 행사로 미디어 파사드, 드론, 미디어 불꽃놀이 등 식후 공연도 이어진다.

14개 시군도 각 지역에서 출범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행사를 통해 모든 시군과 도민들이 함께 출범 의미를 나누고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아 행사가 계획되었다.

이날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념송과 안무도 공개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다소 행정적이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로 신나게 표현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날 18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 플래시몹, 개회,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경과보고, 도지사 기념사, 홍보영상, 정부 인사의 축사, 기타 축하 퍼포먼스·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청년 세대를 중심 무대에 배치함으로써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젊은 세대를 특히 강조했다며, 전북도민들에게 새해 선물인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북두머리를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연출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민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다.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특별법 개정의 숨은 주역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서도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특히,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도와 한 팀으로 부처 협의를 돕고 대안을 제시했던 두 부처는 앞으로 2차 개정에도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제종·세종·제주 타 특별자치시·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축하 인사가 이어졌으며, 일부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영상, 서면 축사로 축하 인사를 대신하기도 했다.

아울러, 출범 첫날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결재 안전으로 민생을 선점하며, 다함께 민생도 정운영계획안을 1호 결재할 예정이며, 첫 외부 일정으로 효자5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KLI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협약을 맺고 행정정보시스템 정비에 공을 들여왔으며,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

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가 128년 역사를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함께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전의 기회’로서 농생명산업부터 문화관광, 고령산업, 미래첨단 산업, 민생특화 산업까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전 전라북도에서 새롭게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출범한다.

당초 제정된 법은 28개 조항으로 선언적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전북도의 노력 끝에 특별법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며 131개 조항의 구체적인 권한도 보유하게 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출범 홍보우표 2종 발행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주우체국서 예약판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 전북 명소’ 홍보우표 2종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우정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청과의 협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기원과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이 우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알리기 위해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해 구성했다.

홍보우표 발행처는 전주우체국이며, 출범일인 18일부터 다음달 16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홍보우표. (사진=전북지방우정청 제공)

일까지 예약 판매한다. 전주우체국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10회 무주 반디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